수치심의 지나친 회피와 부인에 따른 문제들과 그 가능한 해법에 대한 고찰*

서길완**

<차 례>

1. 서론
2. 수치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고찰
3.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의 부정적 영향
4. 맺은 말

【국문초록】

수치심은 다양한 맥락에서 경험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감정이다. 설령 드러나더라도, 폭력이나 맹목적인 분노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은 수치 경험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의 원인과 결과를 추적하고 그 문제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 작업은 수치심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작업을 통해 수치심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그 감정을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38258)

**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회피가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수치심의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특성이 설명된다. 이런 이해의 바탕에서, 수치심의 과도한 회피와 부인이 초래하는 문제와 위험성이 규명된다. 여기서 헬렌 블락 루이스의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과 "수치-분노 악순환"의 개념이 설명적인 틀이 된다. 이 설명적 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수치심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잔존해 있다가 나중에 비정상적인 자기 방어의 형태로 표출된다.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방어 반응이 분노와 격노이다. 이 이론적 분석의 작업은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에 잠복하는 위험성을 표면화하고 규명해 보이는 영화 〈똥파리〉의 주인공 상훈을 둘러싼 수치심에 대한 분석과 연동해서, 종국에는 그러한 감정 경험에 대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주제어: 수치심,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 헬렌 블락 루이스, "수치-분노 악순환", 〈똥파리〉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소위 '묻지마 범죄', '어린 자녀를 동반한 자살사건과 미수사건' 그리고 '군대의 총기 사건'들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 볼 중요한 대목들이 있다. 이들의 범행과 자살 동기를 추적하면 어김없이 '창피', '모멸과 모욕', '굴욕', '망신', 열등감 등과 같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갖고 있는 수치심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보다 더 최근에 인터넷 상에서 탄생한 ~충으로 끝나는 신조어들은 어느 사이 그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넓어져 특정 계층이나 집단 전체에게 모욕을 주고 공격하는 경향으로 흐르면서

사회 각 계층, 젠더,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낳기 까지 했다. 배두현은 김호기의 말을 인용해서 "타자에 대한 공격인 혐오의 감정은 자신에 대한 부정인 모멸의 감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업신여김 당한다는 모멸감과 수치심은 자기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타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과 같은 심리적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분석했다."[1] 그런데 감정 연구자들의 공통된 관찰 결과에 따르면, 수치심이나 모멸감과 같은 감정은 자아의 망가짐이나 자기 존재의 부정적인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비쳐지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모멸감을 유발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품는 감정이지만 드러나기 어려운 감정이다. 배두현의 지적처럼, 설령 드러나더라도, 그 형태는 혐오와 같은 심적 반작용이나 방어적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의 바탕에서 볼 때, 수치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감정 경험은 우리 삶에 편재함에도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회피되고 은폐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방어적인 형태로 가리워진 수치심(경험)의 결과가 전술된 비극적인 사건들처럼 위험한 형태로 돌발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지되지 않는 수치심이 부지부식 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또 그것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수 있다는 가정을 내포한다. 본 논문은 그런 감정(경험)에 따른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치심의 회피와 부인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위험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1980년대의 특정 소수

---

1) 배두현, "○○충(蟲)・헬(Hell)조선… '혐오 수위'도 넘었다", 〈헤럴드 경제〉, 2015년 9월 14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14000742&md=20150914122130_BL, 2016. 8월 30일).

자 교육 관련 연구와 일부 심리학 연구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들 연구는 여성들과 소수자들의 인권문제, 아동, 청소년의 자아와 행동 발달상의 일탈행위, 잘못된 인격형성,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학대, 우울증, 그리고 폭력과 강력범죄 등의 문제가 수치심과 수치심의 맥락과 연관된 자아감 결핍과 손상의 다양한 경험에 기인하다는 점을 관찰했다. 특히 하인즈 코허트(Heinz Kohut)를 위시한 자기-심리학(self psychology) 연구자들의 관점은 본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수치심의 회피현상을 둘러싼 수치심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이들은 수치심의 본질적 특성과 의미를 나르시시즘과 연관시켜 수치심의 회피와 거부 반응을 설명한다. 수치심은 우리의 자아-이상을 좀먹는 일, 그리고 자아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들(경멸, 굴욕, 모욕, 시기, 낮은 자존감 등)을 은폐하거나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어적인 감정이라는 것이다.

수치심을 자아감의 손상과 결핍을 은폐하거나 방어하는 문제, 즉 나르시시즘의 문제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자기-심리학의 연구결과물들은 수치심의 지나친 회피와 부인에 따른 문제를 이해하고 그 해법을 찾는 데 있어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그럼에도, 이 같은 접근방법은 자기의 문제와 관련해서 수치심을 과도하게 개인의 내면적인 현상 혹은 자기에게 중요한 타자와의 배타적인 상호관계의 문제로 환원한다. 그 결과 제 안의 자기 상처를 보듬는 차원에 국한해서 문제 해결점을 찾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혐오를 비롯해 수치심과 관련된 감정문제가 사회 각 계층, 젠더, 세대 간의 갈등을 양산한다는 김호기의 진단을 떠올려볼 때, 수치심의 본질적인 특성과 의미를 보다 넓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조명해서 수치심의 회피와 부인에 따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논문은 자기-심리학이 규정하는 수치심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재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새

로운 수치심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치심을 피하고 은폐할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나 의도를 파악한다. 이런 이해의 바탕 위에서 본 논문은 수치심의 회피와 부인이 초래하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설명한다. 이 작업은 두 개의 측면으로 수행된다. 먼저, 이미 생겨난 수치심의 지나친 회피와 부인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치심의 회피와 부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작용과 원리(메커니즘)를 규명한 헬렌 블락 루이스(Helen Block Lewis)의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unacknowledged shame)[2]에 대한 개념분석을 통해서 이루질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그 이론을 영화 〈똥파리〉 적용해서 수치경험(수치심)의 회피와 부인에 따른 치명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보이되 그 부정적인 영향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2. 수치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고찰

1) 자아 손상에 대한 갈등과 반작용으로서의 수치심

일상에서 우리는 수치 경험의 다양한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수치심과 관련된 다양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쉽다. 그럼에도 수치심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실제로 드러났을 때 비정상적이거나 파괴적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수치심이 어떤 힘을 가진 무엇이기에, 그것이 편재함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애써

2) Helen Block Lewis,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P, 1971, p. 196.

부인하고 회피하게 만드는가? 수치심과 관련된 이 같은 역설적인 현상이 산출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 현대 사회의 드높아진 자존감의 가치 풍토는 수치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회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바로 이런 환경에서 자아감의 상실과 손상은 매우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치심의 본질에 대한 고찰은 자아와 자기에 대한 감정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코허트를 위시한 자기-심리학의 수치심 연구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의 연구관점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더 새로운 의미를 재창출하는 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위해서 여기서 두 단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수치심을 자아 손상의 갈등-방어(반응)에 위치시키는 자기-심리학적 연구 관점에서 수치심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일과, 그 다음에 보다 더 최근의 수치심 연구가들의 관점을 보완해서 수치심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재정립하는 작업이 그것이다.

먼저 코허트를 위시한 자기-심리학 이론가들은 수치심이 거부되고 회피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개인의 자아감의 손상과 방어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 이론가들의 연구관점은 수치심을 자아감의 문제로 접근해서 그 개념에 대한 보다 새로운 본질을 추출하려는 본 연구의 작업에 중요한 참조의 틀이 된다. 그런데 수치심 대한 이들 연구 관점은 수치심을 나르시시즘적 상처나 방어로 환원해서 해석함으로 수치심의 경험이 갖는 중요한 의미와 본질을 놓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가령, 수치심을 과시와 과도한 노출 욕망에 대해 자기를 지키는 방어기능으로 보는 코허트, 제어되지 않는 노출욕망 대한 반동형성으로 보는 레온 부름저(Leon Wrumser), 자아와 자아 이상의 긴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가르하르트 피어스(Garhart Piers), 수치심을 자

존감을 안정시키는 방어로 보는 앤 라히(Annie Reich)와 같은 연구자의 관점은 수치심을 자아의 내면적 갈등 혹은 자아와 타자(자아와 관계 맺는 중요한 사람) 간의 갈등과 그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의 틀에서만 보게 한다. 이 경우, 개인의 심적 내부나 중요한 타자와의 갈등을 넘어 보다 복잡한 요소와 차원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치심의 문제는 포섭하지 못한다. 수치심이 나르시시즘적인 고통과 상처로 환원될 때, 그것에 파생되는 문제들은 특히 병리적인 것으로 축소되어 풀이되는 경향이 있어 수치심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돌발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한 감정이 미치는 범위와 강도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수치심의 본질적 의미를 자아와 나르시시즘적인 관계라는 인식의 틀을 넘어서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에서 수치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수치심을 죄책감과 분리해서 수치심을 정의하는 최근 이론가들의 접근 방법은 자아와 관련된 수치심의 본질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를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특히 개인의 특정한 행위와 특별한 자기-결함에 초점을 맞추어 반응하는 죄책감과 비교, 분석해서 그것으로부터 수치심을 분리함으로써 자기와 관련된 수치심의 본질적인 이해를 넓히는 이들 연구의 관점은 전술된 자기-심리학적 관점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죄책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죄책감의 중요한 특성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에서 잘 나타난다. '내가 그 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라는 표현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말하자면, 죄책감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과거의 특별한 그 일, 그 행동이다. 내가 한 그 특별한 일과 행동만 바로 잡으면 현재의 나의 정체가 오명을 입고 더렵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그 잘못은 내가 했어, 그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은 바로 나야'라고 말

할 때가 있다. 이 말의 내막을 따져보면, '과거의 그 일'이 아닌 '내가' 그 모든 책임과 비난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 속에는 수치감이 있다. 물론 이 두 감정 모두 과거의 잘못이 타자의 평가와 판단 아래 놓임으로써 야기되는 감정 상태라는 점에선 비슷하다. 그러나 그 대상이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인가의 문제는 중요하다. 평가와 판단의 최종과녁이 향하는 쪽이 '나' 혹은 '잘못 된 일이나 행동 자체'인가에 따라서 사후적인 영향과 책임의 문제가 커지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감정 상태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3] 때문에 이 두 감정을 구별하는 문제는 차후 보다 더 세밀한 이론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인 설명으로 덧붙여질 필요가 있다.

---

3) 그럼에도 몇 가지의 중요한 차원에서 수치와 분노를 구별하는 탱니의 도표는 수치와 죄책감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차원	수치심	죄책감
평가의 초점	전면적인 자아("*내가* 그 끔찍한 일을 했어")	특정 행위("내가 그 끔찍한 *일을 했어*")
자아의 작용	관찰하는 자아와 관찰되는 자아로 "분리"됨	통일된 자아가 그대로 유지됨
자아에 미치는 영향	전면적인 평가로 자아가 손상을 입음	전체적인 평가로 자아가 손상을 입지 않음
현상학적 경험	위축, 작아지고, 무가치하며 무력한 느낌	긴장, 회한, 후회
동기적 특징	숨고 싶은 욕망, 혹은 보복하고 싶은 욕망	고백하고, 사과하거나 벌충하고 싶은 욕망

표 1 June Price Tangney, "Shame and Guilt,"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Ed. June Price Tangney, Kurt W. Fischer, New York: Guilford P, 2002, p. 116.

2) 죄책감과의 구별을 통한 수치심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의미 도출

전술된 죄책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많은 현대 수치심 이론가들은 죄책감과 구별되는 새로운 수치심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도출한다. 가령, 『수치: 노출된 자기』(*Shame: The Exposed Self)*에서 헬렌 루이스는 수치심이란 "일련의 복합적인 인지 활동"이며 어떤 사람의 "기준, 규칙, 목표, 그리고 전반적인 자기 가치와 관련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4]이라고 말한다. 『좌절로 인한 죽음: 수치와 자살』(*Death by Despair: Shame and Suicide*)의 저자 라몬 마르티네쯔 피송(Ramon Martinez Pison)도 비슷한 맥락에서 수치심을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수치심은 어떤 사람이 그/그녀의 "자아-이상이 제시한 목표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자기에 침투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그리고 타자의 동정적인 시선에 자기의 결함을 노출하는 것이다".[5]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은 "타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대리 경험"[6]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수치심은 특히 "예민하고, 내밀한, 그리고 상처입기 쉬운 자기 본질적 양상을 드러내는 폭로"와 "노출의 순간"[7]에 따른 고통감정인 것이다.

헬렌 메렐 린드(Helen Merrell Lynd)에 따르면, 특히 이러한 노출은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그럼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우리 내, 외부의 사건의 양상이 갑자기 우리에게 의식된다."[8] 말하자면

---

4) Michael Lewis,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Free, 1992, p. 75.

5) Ramon Martinez Pison, *Death by Despair: Shame and Suicide,* Peter Lang International Academic P, 2006, p. 9.

6) Helen Lewis,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The Many Faces of Shame,* D. Nathanson, ed, New York: Guilford, 1987, p. 109.

7) Donald Nathanson, "A Timetable For Shame," *The Many Faces of Shame,* Donald Nathason, ed, New York: Guilford, 1987, p. 4.

8) Helen M Lynd, *On Shame and The Search for Identity,* London: Routledge,

이 돌발적인 노출의 상황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우리 자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우리 자신도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노출된 것이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우리 자신의 이미지와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불일치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환경에 살아가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가정에 따라 살아왔는데, 갑자기, 폭력적으로, 이 같은 가정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순간 우리는 생소한 환경의 생경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야 하는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명 우리가 그 세계에 속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세계의 사람들이 던진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무력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급작스럽게 노출된 이 취약성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수치심 연구가인 마이클 L. 모르간(Michael L. Morgan)은 이처럼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별하고 수치를 전체적인 자기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감정 연구자들의 관점을 수용할 경우, 수치심이 어떤 개인의 "전체적인 정체성 유지"[9]에 관여하기 때문에 죄책감보다 더 근본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경험 당사자 쪽에서 보자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내 과실이나 부분적인 결함 때문에 속 끓이는 상태보다 타인의 눈이 합체된 객관화된 나의 눈으로 내 잘못과 결함을 목격하게 되는 상황이 훨씬 더 충격적이고 혼란스럽다. 더구나 자신에게든 중요한 타자에게든 노출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취약함이나 자기 역할수행의 부적격성이라면, 전방위로 노출된 자신의 실패와 결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평가는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자

1958, p. 34.

9) Michael L Morgan, *On Shame: Thinking in Action,* New York: Routledge, 2008, p. 37.

존감에 대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죄책감과의 구별작업을 통해 최근 수치심 연구가들이 주출한 수치심의 본질적인 특징들에서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수치심은 개인의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 자기 전체에 대한 총공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통의 강도와 깊이의 정도가 자기-심리학자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임이 예측된다. 그만큼 그런 상황에 맞서는 방어와 회피의 형태와 양상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방어와 회피의 형태뿐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보다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의 부정적인 영향

1)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의 메커니즘

수치심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치명적인 결함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사건, 또 제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불쾌한 감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불쾌감을 넘어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피하려는 노력이 잘못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미 생겨난 수치심을 감추려는 시도를 납득되지 않는 분노표출과 맹목적인 폭력과 같은 파괴적 행위로 표현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신의학의 임상결과와 일부 심리학자들의 연구결과들은, 수치심을 지나치게 회피하거나 부인하려는 시도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수치심의 회피와 부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양태 사이에 작동하는 메커니

즘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성을 제기한다. 헨렌 루이스의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 이론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 이론은 헨렌 루이스가 100회가 넘는 임상적인 만남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람들이 수치를 경험하면서도 그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요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규명한 것이다.

수치심이 편재함에도 여전히 수치심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사회적 풍조, 이런 "저가시적 수치심"[10]이 불러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이 부정적 결과의 실례로 보이는 참혹한 사건들을 감안할 때,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이론의 효용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헬렌 루이스의 이론은 그간 국, 내외적으로 잘 소개가 되지 않아 다소 생소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뒤, 그 이론을 영화 〈똥파리〉에 적용해서 이론을 구체화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주인공이 경험하는 허구적인 예를 통해 가능한 문제의 해법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명한 수치심 이론가인 헬렌 루이스의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헬렌 루이스가 관찰 한 바 따르면,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은 우리의 내면적 삶에 두 가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힘을 행사한다. 그 두 가지의 형태는 "명시적이면서도 구분되지 않는"(overt, and undifferentiated) 수치심과 "비껴간"(bypassed)[11] 수치심이다. 전자의 경우, 감정적인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땀을 흘리는 등 달갑지 않는 신체 표현이 동반된다. 그러나 이 감정은 그에 걸맞지 않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10) 바바렛, J.M, 『감정의 거시 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박형신 · 정수남 옮김, 서울: 일신자, 2007, p. 194.

11) Helen Lewis, op.cit., 1971, p. 197.

위장되거나 부인된다. 가령,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껴진다'가 아니라 '다소 자신이 없다'라든가 '그 상황은 불편하고 의아하고, 당혹스럽다'와 같이 감정상태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말로 가려진다. 불편하고, 의아하고 당혹스러운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알려고 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다. 토마스 셰프(Thomas Scheff)와 수잔 렛징어(Suzanne M. Retzinger)의 설명을 빌자면, 이 상황은 "내면의 자기에서부터 외부 세계로 투사된다".[12] 이런 상황에서 두 항(감정을 경험하는 사람과 감정 상태)이 서로 직접적인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치심을 경험하는 당사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인식되지 않는 수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의 두 번째 형태인 "비껴간 수치심"은 억압되거나 부인된 모든 강한 감정들에 내재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심적 억압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치심이 억압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어떤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념은 우리에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분노표출과 공격적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가령, 헬렌 루이스의 이 개념을 다양한 범죄자들, 특히 히틀러의 공격적이고 분노적인 성향을 분석하는 데 적용한 셰프와 렛징어의 관점을 예로 들어보자.

셰프와 렛징어는 많은 범죄의 경우에 굴욕감을 느낀 범죄자가 복수의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관찰한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인 (미수)범이나 그 밖의 다른 범죄자가 어떤 특별한 감

12) Thomas Scheff and Suzanne Rezinger, "Helen Block Lewis on Shame: Appreciation and Critique," *The Widening Scope of Shame,* Melvin R Lansky and Andrew P. Morrison ed, New York: Psychology P, 1997, p. 142.

정적 과정을 겪는다고 가정한다. 그들이 참조로 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범죄자들은 처음에 굴욕적인 상황으로 인식한 것을 맹목적인 분노로 변형시키고, 그 분노에 휩쓸려 결국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덫에 갇힌다. 이 같은 "수치-분노 감정의 악순환"(shame-rage spiral)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수치를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분노로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13] 그러나 모든 굴욕이 맹목적인 분노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그런 악순환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기제이다.

셰프와 렛징어에 따르면, 바로 그 기제는 '인지되지 않음'이다. "촉발된 감정에서 수치가 인지되지 않을 때 맹목적인 분노로 이어진다"[14]는 것이다. 물론 "비껴간 수치심"도 처음에는 분명 그 수치의 상황이 짧게 인지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치심은 자기 자신 혹은 타자의 시선에 자기의 실패나 결함이 노출되는 곳, 즉 어떤 사람이 실패하거나 잘못한 것을 그 사람 자신이 바라보는 지점에서 촉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껴간 수치심"의 경우, 자기 전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은 대체로 짧은 시간 경험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문제적 사건과 마주한 그 순간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거나 그 상황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대개 이런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문제가 한 개인의 자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압적일 때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재빠른 일격"[15]을 경험한 다음의 일이다. 헬렌 루이스는 "수치심이 생겨

13) Thomas Scheff, Suzanne Rezinger, *Emotions and Violence: Shame and Rage in Destructive Conflicts,* Lexington: Lexington Books, 1991, p. 48.

14) Thomas Scheff and SR, Ibid., pp. 148-149.

15) Helen Lewis,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P,

났지만 그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았을 때, 증상이 발생한다"[16]고 진술한다. 불쾌한 장면이나 문제의 상황이 "상상적이지만 강박적이고 반복적으로 되살려짐"[17]으로써 그 사람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자비한 폭력과 맹목적인 분노표출과 같은 증상은 "비껴간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그녀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수치심을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이라 하겠다.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 내막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한다. 여기에 남아 있는 것은 불쾌감(고통의 감정)과 혼란의 감정이다.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이후 그런 수치의 순간을 환기시키는 상황과 맞닥뜨릴 위기에 처해질 경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방어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감정이론가들에 따르면, 분노는 바로 이 "인지되지 않은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활용하는 사후적인 대체물이다.

더욱이 경험된 수치심이 인지되지 않지만 잔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불식간에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은 수치-분노(폭력)의 악순환을 맹목적이면서도 한없이 반복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여기서 더 큰 문제와 위험성이 산출된다. 전술되었듯이, 분노는 일종의 자기-비난의 대체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과녁은 자기에게로 향해져 또 다시 자기를 공격하고 그 공격은 다시 타자로 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해악적인 순환의 고리에 "비껴간 수치심"을 가진 당사자 뿐 아니라 그의 분노 표출의 대상이 되는 타자들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그 감정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1971. p. 197.

16) Helen Lewis, Ibid., p. 197.

17) Thomas Scheff, SR, op.cit., 1991, p. 148.

2) "비껴간 수치심"의 파괴적인 영향

앞에서 우리는 이미 촉발될 수치심이 억압됨으로써 생겨나게 되는 "비껴간 수치심"은 그 감정을 가진 사람뿐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그 이론을 적용해서 〈똥파리〉(*Breathless*)를 살펴보고 가능한 해법을 고민해보기로 하자.

2009년에 개봉된 영화 〈똥파리〉는 유수 국제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받고, 예상외로 많은 관객까지 동원한 저예산 독립영화다. 이 영화 주제에 대한 중론은 가정폭력의 대물림의 비극적인 현실을 그린 영화라는 것이다.[18] 실제로 이 영화는 알코올 중독에 걸린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내와 어린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들과 이후 성인이 된 아들이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는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아들의 부하직원으로 들어간 신입 후배가 선배로부터 체득한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게다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화 일부를 자신의 어린 시절 가정 폭력의 경험이 투영된 것이라고 고백한 양익준(각본, 연출, 연기) 감독의 말에서 〈똥파리〉가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전면적인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서정남의 지적대로, 이 영화는 "폭력성이 세대에 걸쳐

18) 김준수는 〈똥파리〉를 "사회의 약자들이 끝없이 서로에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그리고 있다고 평하면서 상훈의 폭력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폭력의 대물림에 있음을 시사한다. 정명화 역시 〈똥파리〉는 "자신이 혐오하는 것들을 부정"하면서 어느 새 부모와 "닮아 있는" 자식의 모습을 표현한 영화로 요약하고, 하성태는 〈똥파리〉의 폭력은 부모 자식 사이(상훈과 그의 아버지, 연희의 남동생 영재와 그의 아버지)로 전이되고 순환될 뿐 아니라, 용역깡패 선배와 후배(상훈과 영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상훈의 무자비한 폭력성의 근본 원인을 가정학대와 물리적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한 요소에서만 찾는다.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중요한 소스로서 폭력을 표현"[19]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 폭력의 대물림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영화 주인공인 상훈의 분노가 점화되어 맹목적인 폭력 괴물로 변하는 가장 극적인 지점엔 언제나 가정 폭력(학대)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목격되기 때문이다. 상훈은 장소불문하고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맹목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분노를 표출한다. 그러다 분노가 사그라지면 자기가 행사한 부당한 폭력 때문에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자기 비난과 자기 모멸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속되는 폭력은 더욱 더 무자비하고 맹목적인 형태로 가열하게 진행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머뭇거림에 대한 상훈의 과도한 폭력 반응은 과거 그가 경험한 극심한 수치심과 그 감정을 지나치게 회피하려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본 논문은 상훈의 폭력성의 기원이 가정 폭력에 있다는 사실을 후경에 두고, 과거의 수치 경험이 왜 상훈의 폭력성을 가열시키고 심지어 맹목성까지 띄게 하는지를 머뭇거림에 대한 상훈의 비정상적인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영화는 길을 가던 상훈이 어떤 젊은 여자가 그의 애인으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남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돌아서다가 갑자기 울먹이고 있는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후 영화는 감옥에 간 아버지가 출소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훈의 어린 시절의 과거가 소환되기 전까지 소위 '니편 내편'을 가리지 않고 거칠게 분출되는 상훈의 분노와 폭력적 행위를 불

19) 서정남, 「영화 〈똥파리〉: 우리 사회의 일상적 파시즘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 폭력의 전이와 그 희생자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9집, 2013, p. 318.

편하게 추적할 뿐이다.

특히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감옥에 갔던 아버지가 출소한 뒤 어쩌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면 상훈의 폭력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해진다. 상훈은 그와 마주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는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다. 심지어 동변상련의 정이 든 여고생 연희에게조차 폭언을 퍼붓고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한다. 그러다 지나가던 길에 두 사람의 심상찮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한다. 그 순간 영화는 돌연 상훈의 통제되지 않는 폭력성이 유래된 지점을 향해 방향을 튼다. 연희의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라는 말과 "제발 말려줘"라는 그의 여동생의 말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무소불위의 폭력을 행사하던 '용역깡패' 상훈에게 오랜 동안 묻혀있던 그의 어린 시절의 과거가 돌연 끼어든 것이다.

소환된 문제의 사건은 상훈이 초등학교 시절쯤으로 보이는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의 회상 속에 등장하는 어린 상훈은 술에 취해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아버지를 막아설 만큼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용기도 없는 듯 보인다. 그에 반해 상훈의 어린 여동생은 그 사태를 불안하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아버지의 폭력을 말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폭력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감지한 동생은 다른 방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상훈에게 달려와 "저러다 엄마가 죽어, 엄마 죽어, 오빠가 가서 말려줘"라는 말을 반복하며 애원해보지만 상훈은 "그냥 냅두라니까"라고 소리치며 그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자 동생은 원망어린 눈으로 상훈을 한 번 쏘아본 뒤 저지할 틈도 없이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서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동시에 아버지는 방에서 나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다시 방으로 향한다. 순간, 상훈은 문

제의 심각성을 감지하지만 아버지를 바로 뒤 쫓아가지 않고 방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방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간다. 여동생은 이미 아버지가 잘못 휘두른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였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치명상을 입은 동생을 들쳐 업고 뛰어나가는 상훈을 뒤쫓아 가던 어머니마저 갑자기 달려든 트럭에 치여 사망하게 된다.

클라우디아 웰즈(Claudia Welz)의 진술처럼, 이 순간은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건에 압도되거나, 공포의 고통으로 인해 심신이 마비되는 트라우마적 상황이다."[20] 이 당시 어린 상훈은 그 자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폭행 후 놀이터에서 정신을 잃듯 잠에 빠져드는 상훈이 "사람을 그렇게 패놓고도 잠이 오냐"는 연희의 말과 함께 과거의 시점에서 다시 현재로 되돌아오는 대목이 시사하듯, 그는 그 문제적 사건을 백일몽의 형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에서 볼 때, 아버지의 출소 이후 상훈의 폭력성이 더 맹목적으로 가열되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추동력은 그가 뚜렷이 인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과거 폭력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떠올릴 수 없는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일련의 기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어장치가 풀린 듯 분노와 폭력성을 쏟아내는 상훈의 맹목적인 질주과정에 갑자기 끼어든 과거 회상 장면의 의미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장면은 영화가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보여지는 상훈의 맹목적인 폭력 장면에 전술도 없이 갑자기 밀치고 들어 온 것이다. 백일몽의 형태로 뒤늦게 마주한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장면 속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보다는 동생의 죽음과 관련된 그 자신의 무기력하고 비겁한

20) Welz, Claudia, "Shame and the Hiding Self," *Passions in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History and Theory of Emotions,* Vol, 2, 2011, p. 89.

모습이 강조되어 묘사되고 있다. 제대도 인식되기 전에 이미 상훈의 뇌리에 박혀버린 그의 부끄러운 모습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춰야 할 것이며, 그것이 상기되는 상황에 직면할 위기에 처하면 가장 극단적인 방편을 동원해서라도 막아내야 하는 그의 치부인 것이다. 어린 시절의 바로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재연되는 듯한 광경을 목격한 상훈이 불같은 분노와 폭력으로 그 상황을 덮어 감추는 장면은 영화의 다른 곳에서도 등장한다

문제의 장면에는 상훈과 영재, 그리고 영재의 친구가 같은 팀이 되어 한 채무자의 집에서 빚을 갚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채무자는 어린 시절 상훈의 아버지처럼 두 남매 앞에서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다가 상훈의 일행을 맞는다. 채무자의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상훈은 그 남자를 협박하기 위해서 영재에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영재는 두려움과 당혹감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다. 그 모습을 본 상훈은 채무자를 폭행하다 말고 갑자기 영재에게 달려들어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다. “여기 놀러왔냐”는 상훈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영재가 일이 서툴러서 때린다고 하기엔 영재에 대한 상훈의 폭력은 평소 그가 훈육조로 신입을 때리는 정도를 넘어 거의 광적인 수준이다. 이것은 상훈의 맹목적인 폭행이 영재의 머뭇거리는 행동을 본 것에서 촉발되었지만 영재 행위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님을 말해준다. 영재의 행위를 통해 그가 본 것은 꿈의 형태로 외삽된(extrapolated) 과거 회상 장면에서 목격한 어린 시절 그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재에 대한 상훈의 맹목적인 분노와 가열된 폭력은 웰즈의 진술처럼, “결코 온전히 숨겨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하는 자기를 느끼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또 그렇게 “억제된 감정에 감춰진 듯 보이는 수치심이 결국에는 그 사람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에 돌발된 사태라고 할 수

있다.[21] 말하자면, 그의 눈에 포착된 영재의 머뭇거림은 "〈시티 라이트〉 (City Lights, 1931)에서 찰리 채플린이 목구멍으로 삼켜서 남부끄러운 그의 존재의 잔혹한 실재를 촉발시키게 한 호루라기"[22]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되울리게 될지 모를 그 공포의 호루라기 소리를 막기 위해 상훈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용역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영재를 불러 세워 뺨을 때리며 모욕적인 말로 재갈을 물린다. "니가 그렇게 싸움 잘해? 니가 그렇게 똑똑해? 아무리 싸움 잘하고 똑똑해도 우물쭈물하다가 뒤지는 거야. 나는 우물쭈물하는 새끼를 보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안 죽으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 병신 같은 감정에 빠져 있지 말구, 알았어?"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앞당겨 밝히자면, 영재에게 가해진 바로 이 같은 모욕적인 폭언과 폭행은 후일 상훈의 죽음에 기폭제가 된다. '우물쭈물 하지 말라'던 그가 강제 빚 징수를 위해 들른 한 채무자에 집에서 평소 그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증오하던 지연된 행동을 보인 때문이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하는 상훈에게 채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상훈의 뒤에 서 있던 영재가 갑자기 달려들어 채무자를 마구잡이로 폭행한다. 순간, 상훈은 그 상황이 아이들이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에 몹시 당황해하며 잠시 머뭇거리다 오히려 영재를 나무라고 그의 행동을 가로막는다. 바로 그 지연된 행동에 격분한 영재가 상훈의 뒤통수를 가격해서 상훈이 치명상을 입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장면 외에도 머뭇거림에 대한 상훈의 이상 반응은 영화 곳곳에서 포착된다. 남편의 오랜 상습 구타를 견디며 어린 조카 영인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켜서 아이가 "병신 같이 주눅 들어 산다"고

---

21) Claudia Welz, Ibid., p. 89.

22) Ruth Reys, *From Guilt to Shame: Auschwitz and Afte,.* Princeton: Princeton UP, 2007, p. 172.

이복 누나에게 폭언을 하는 대목이라든가,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조카 영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 옹알이하듯 말하는 것을 보고 "우물쭈물"한다고 타박하고 화를 내는 대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주저하는 태도와 머뭇거리는 행동은 문제의 사건 이후 성인이 된 상훈의 삶을 지배하는 유령적 존재로 그의 폭력을 더욱 무자비하고 맹목적으로 만드는 원흉으로 그려지고 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존재는 상훈의 정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동결시키고, 그러므로 그의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영화는 그의 맹목적인 폭력과 무맥락적인 분노 표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술에 취한 아버지가 무력을 행사하고 부엌칼로 어머니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겁에 질린 어린 소년이 할 수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그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의 범죄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에도 동생이 죽고 난 이후 상훈의 삶 전반에 걸쳐 머뭇거림에 대한 비정상적 반응이 계속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건 당시의 상황이 트라우마적 수치심으로 경험되는 동시에 그 감정 경험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고 억압되었거나 '비켜갔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술되었듯이, "수치심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일일 뿐 아니라 그/그녀 자신에게 그 사람이 알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의 존재를 노출시킨 결과이다".[23] 특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수습할 능력과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수치 경험을 할 경우, "발가벗겨져 전방위에서 보여진다"[24]고 느끼기 때문에 그 경험은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어린 상훈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가 볼 수 없

23) Helen Lynd, op.cit., p. 31.
24) Helen Lynd, Ibid., p. 34 재인용.

는, 그럼으로 방어가 불가능한 뒤쪽에서 급습을 당하듯 수치심을 너무 돌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벌거벗은 몸과 마음은 그 자리에서 동결된다. 무기력한 노출의 순간에 그의 취약함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일시 유보되고, 이제 그 판결은 사후적인 판결자에게 넘어가버린다. 판결자는 상훈의 어린 여동생의 시선, 보다 정확하게는 그런 시선을 내면화한 상훈 자신이다. 원망하는 듯한 동생의 눈을 통해 장남과 오빠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그 자신의 부적격성과 결함을 사후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상훈은 빠져나오기 힘든 "수치-분노의 악순환"의 덫에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상훈의 맹목적인 분노의 궁극적인 대상은 무능력한 채무자들과 수치심을 야기한 아버지라기보다는 그 자신, 정확히 말하자면 두렵고 무서워서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와 여동생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나약하고 비겁한 그 자신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나약하고 비겁한 존재는 죽은 여동생에게 자신에 대한 경멸을 투사해서 만들어낸 상상적인 인물이지만, 결국 그것은 상훈 자신이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연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한 공격의 최종적인 과녁은 그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25]

---

25) 죽은 동생의 눈을 통해서 상훈이 느끼는 수치심은 극심한 트라우마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경험하는 '생존자 죄책감'과도 비슷하다. 상훈의 경우, '생존자 죄책감' 중에서도 수치심과 비슷한 의미로 해석되는 "동일시 죄책감"(identification guilt),의 성향과 닮아 있다.(Ruth, Leys, op. cit., p. 49) 로버트 제이 리프톤(Robert Jay Lifton)은 막대한 재난 생존자에 관한 한 연구에서 "동일시 죄책감은 타자의 눈을 통해서 생존자 자신을 판단하려는 성향에 기초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히로시마 생존자들에게 드러나는 죽은 사람들의 비난하는 눈길의 내면화된 이미지가 갖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Ruth, Leys, Ibid., p. 50) 레이스는 리프톤의 이 같은 관점은 죄책감과 수치심 두 가지 감정 모두를 내포하고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생존자가 그 자신을 희생자의 삶을 훔친 사람으로 보는 심적 과정, 즉 수치심을 설명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일시 죄책감"을 수치심의 구조로 해석한 레이스의 관점에 비추어볼 때, 동

돌발적인 분노가 끼어드는 것은 바로 그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과녁을 피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여동생의 시선 의해서 그 자신에게로 향해진 경멸의 감정은 그를 파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사람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상기시키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소위 '묻지마 식' 공격을 하는 것은 극심한 수치심에 대한 비정상적인 방어, "비껴간 수치심"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런데 "비껴간 수치심"은 그 감정을 가진 한 개인의 내면적인 감정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비껴간 수치심"과 연동해서 촉발되는 수치심과 분노/격노 사이의 연쇄 작용에는 수치심을 경험한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감정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셰프는 그 대상이 개인, 집단, 더 나아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껴간 수치심"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폭발적 위험성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셰프는 헬렌 루이스의 "수치-분노 악순환"의 개념을 확장해서 만든 "수치/격노 삼중 악순환"(triple spirals of shame and anger)[26]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 파괴적인 힘이 갖는 무한한 전염성을 설명한다. 그것은 헬렌 루이스가 "개인의 내면적 감정의 덫"이라 부르는 "수

생이 아버지의 폭력을 말려달라고 애원하다가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오빠를 향해 던진 원망과 비난의 눈총, 상훈은 죽기 직전 동생이 던진 그 바로 눈길과 우물쭈물한 그 자신을 동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으로 그는 그 자신을 동생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으로 보게 되고, 그럼으로 이기적으로 살아남으려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과 행동에 대한 상훈의 경멸과 증오는 죽어가기 직전의 여동생의 시선과 무의식적이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한 죄책감에 기인한 것으로, 이 같은 종류의 죄책감은 부모와 사회의 비난, 혹은 실제적인 법과 규범의 처벌의 힘과 상관없는 고통의 감정인 수치심인 것이다.

26) Thomas Scheff, "Shame and Conformity: The Defference 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y Review,* Vol, 53, 1988, p. 397.

치-분노 악순환"의 내면적 과정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러한 감정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더 파급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똥파리〉에서 영재가 상훈에게 치명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목은 "비껴간 수치심"과 연동해서 생겨나는 악순환이 수치심을 가진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이다. 상훈이 그의 어린 시절 경험한 극심한 수치심을 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맹목적인 폭력으로 외재화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된 것은 영재이다. 그는 왜 자신이 그렇게 모욕적인 폭언을 듣고 폭행을 당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급습을 당하는데, 그 모멸적인 경험이 결국 "정서적 원자폭탄"(감찬호 81)이 되어 상훈에 대한 복수의 부메랑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영화의 엔딩은 영재가 용역을 받아 노점상들의 포장마차를 부수고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들을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는 누나 연희의 모습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 모습은 과거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그들 남매의 엄마가 당시 철거를 담당한 상훈 패거리에게 달려들다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과 오버랩 되면서 영재의 폭력성의 잔혹함을 부각시킨다.[27]

---

27) 영화에서 상훈은 신입으로 들어온 영재가 연희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모르고 공격을 당하고, 또한 과거 만식과 함께 상훈이 용역을 받아 거리 포자마차를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연희의 엄마라는 사실을 두 당사자들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 이 철거 사건에서 연희의 엄마는 상훈이 아닌 만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베트남전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상이군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를 꾸리던 엄마에게 포장마차는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며 철거를 막다가 상훈의 팔에 극심한 상처를 입힌다. 상훈은 그런 그녀를 되받아치지 않고 피하지만 그를 본 만식이 그녀를 공격한 것이다.

4.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극심한 수치심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서의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극심한 수치심이 반드시 폭력이나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모멸감』의 저자 김찬호가 제임스 길리건의 말을 인용해서 지적하듯, "수치심은 폭력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28] 그의 적절한 비유대로, 몸 안에 들어간 결핵균이 모든 사람을 결핵에 걸리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수치심에 결핵균과 같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핵과 같이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치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낮은 자존감이나 그런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변 환경 등 다른 조건들이 맞물려야 한다. 영화 〈똥파리〉의 상훈의 경우처럼 제 자신에게조차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가 노출될 때, 경제적인 핍박과 가정폭력으로 자존감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그 끔찍한 노출을 가릴 비폭력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런 까닭에 그에게 돌발한 끔찍한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가 익히 보아왔던 폭력이나 격노를 통해 계속해서 방어함으로써 수치 감정 경험을 "트라우마적 수치심"으로 발전시킨 것이 수치심을 폭력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한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미 생겨난 수치심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간단한 해법은 앞의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가난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개인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순전히

28) 김찬호,『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p. 75.

외부적인 상황을 살펴서 그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면, 그 작업은 보다 넓은 사회학적 영역에서 후속적인 연구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폭력을 수치심의 방어로 활용하는 사용자 측면에서 접근하면, 비록 그 답을 구하는 과정에 각고의 노력과 어려움이 요구되지만 수치심을 가진 당사자 쪽에 그 해법을 찾는 문이 열려 있다. 앞서 수치심이 촉발될 당시의 상황이 경험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위압적인 경우, 그 최초의 상황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잠시 미루어지고 나중에 폭력과 같은 방어적인 수단을 통해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하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과정에서 "인지되지 않은 수치심"을 가진 사람 스스로가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수정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폭력과 분노는 내면화된 타자의 시선에 대한 무의식적(수동적)인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 눈총을 막아설 적절한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든 그 눈총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회피하기 위해 택하는 손쉬운 방편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앎, 수치심에 대한 인식과 정상적인 수용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부끄러운 과거 행위가 답습되고, 그러한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따라서 수치심의 인지와 진정한 수용이 수동적인 반응이 아닌 자발적인 대응이 되려면 타자의 눈을 통한 자기-평가(비평)의 과정에서 '수정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부끄러운 과거와 그에 따른 감정을 완전히 소거하고 해소하려는 시도가 아닌, 다시 마주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그것을 수정함(재창출, 재구성)으로써 동일시적 반응으로 무기력해진 나의 현 입지를 일깨우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회피하고 싶은 나의 가장 깊은 진실을 정면으로 통과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타자의 평가로 동결된 나의 오염된 존재가 아니라 경험 주체인 내가 바로 잡아야 할 미래인 것이다.

참고문헌

바바렛, J. M,『감정의 거시 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박형신・정수남 옮김, 서울: 일신자, 2007.

배두현, "○○충(蟲)・헬(Hell)조선… '혐오 수위'도 넘었다," 〈헤럴드 경제〉, 2015년 9월 14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914000742&md=20150914122130_BL, 2016. 8월 30일).

김찬호,『모멸감 :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김준수, "대한민국 병든 곳 들춰낸 영화," 〈오마이뉴스〉, 2012년 2월 28일,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72249, 2016년 9월 29일).

서정남,「영화 〈똥파리〉: 우리 사회의 일상적 파시즘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 폭력의 전이와 그 희생자들」,『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13, Vol. 59, pp. 289-326.

양익준, 〈똥파리〉, 영화사 진진, 2008.

하성태, "똥파리 - 이 괴력의 독립영화, 놓치면 후회한다," 〈오마이뉴스〉, 2009년 4월 13일, (http://woodyh98.tistory.com/42, 2016년 8월 30일).

Lewis, Helen B, *Shame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P, 1971.

_____, "Shame and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The Many Faces of Shame,* D. Nathanson, ed, New York: Guilford, 1987.

Lynd, Helen. M, *On Shame and The Search for Identity,* London: Routledge, 1958.

Michael Lewis,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Free, 1992.

Morgan, Michael L, *On Shame: Thinking in Action,* New York: Routledge, 2008.

Morrison, A. P, *The Underside of Narcissism,* Hilsdale, NJ: Erlbaum, 1989.

Nathanson, Donald. "A Timetale For Shame", *The Many Faces of Shame*. Donald Nathason, ed, New York: Guilford, 1987.

Pison, Ramon Martinez, *Death by Despair: Shame and Suicide,* Pete Lang International Academic P, 2006.

Reys, Ruth, *From Guilt to Shame: Auschwitz and After,* Princeton: Princeton UP, 2007.

Scheff, Thomas, "Shame and Conformity: The Defference 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y Review, 1988, Vol.53, pp. 395-406.
Scheff, Thomas and Rezinger, Suzanne. *Emotions and Violence: Shame and Rage in Destructive Conflicts*. Lexington: Lexington Books, 1991.
_____, "Helen Block Lewis on Shame: Appreciation and Critique", *The Widening Scope of Shame*. ed. Melvin R. Lansky and Andrew P. Morrison. New York: Psychology P, 1997.
Tangney, June Price, "Shame and Guilt,"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June Price Tangney, Kurt W. Fischer, ed, New York: Guilford P. 2002.
Welz, Claudia, C. Welz, Welz, Claudia, "Shame and the Hiding Self," *Passions in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History and Theory of Emotions*, Vol, 2, pp. 78-89.

(**투고일**: 2016. 11. 10 **심사완료일**: 2016. 12. 7 **게재확정일**: 2016. 12. 9)

서길완
소속: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36길 111
전자우편: gilwan71@hanmail.net

[Abstract]

The Problems with Excessive Avoidance and Denial of Shame and a Study on Possible Solutions

Seoh, Gil-Wan

Although shame is experienced in various contexts, the feeling has low visibility. In many cases, the feeling, if found, is revealed in an abnormal and destructive mode such as a fresh outburst of violence or a manifestation of blind rage. This essay focuses on tracing the cause and effect of this abnormal reaction to shame experience and offering a clue for solving problematic situations. The work begins at understanding the natural meaning of shame. This work aims to explain the naturally negative character of shame, which makes the person involved avoid and deny the occurrence of the feeling.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the problems and danger caused by the excessive avoidance and denial of shame is revealed. Here, what Helen Block Lewis calls "unacknowledged shame" and a "shame-rage spiral," becomes a conceptual framework. According to this framework, when a person experiences shame but does not perceive it, the emotion remains unresolved and may be expressed belatedly through abnormal forms of self-defense. The most typical defensive reaction against unacknowledged shame involves anger and rage. This analytical work is associated with analysis of shame experiences surrounding Sang Hun, the protagonist of the film Breathless, in which the danger lurking in "unacknowledged shame" surfaces and materializes and finally causes us to struggle to seek an alternative to the feeling experience.

Key Words: shame, "unacknowledged shame", blind rage, Helen Block Lewis, "shame-rage spiral", self-defense